

“십이오”의 독도체험 100일을 말하다

접 수 번 호	
학 교 명	단양고등학교
동아리(팀)명	십이오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동아리명을 "십이오"라고 정한 이유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 것에서 영감을 얻어 독도의 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십이오"라고 정했다. 우리의 팀명이 "십이오"라는 이유만으로 교내 학생들이 독도의 날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졸업을 하고 나서도 1년에 한 번 즈음은 우리 국토 독도의 소중함에 대해 삶에서 되돌아보길 바란다.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 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김대훈	1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2	천성혁	2	자료 수집 및 정리
3	강수현	1	활동 내용 기록, 사진 촬영 및 관리
4	정현진	1	영상 제작, 보고서 작성
5	황영제	2	활동 전반적인 부분 조율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친구들의 독도 관심 업"

- 주제 선정 이유 : 독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생들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교과서에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알리는 등의 공세를 취하는 시점에서, 우리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땅의 청소년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는 이 활동 주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활동 기간** : '18. 5. 2. ~ 8. 9.(100일간)

○ **추진 방법** : 독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팀을 결성하였고, 지도 선생님을 섭외하여 세부 계획을 세웠다. 우리 단양고등학교는 작년부터 올해에 이어 국토사랑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매년 우리 국토와 우리 역사와 관련된 학습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지어 학교에서 국토 연구학교 예산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아래의 활동 중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주변 단양 지역의 선생님들과도 인터뷰 등의 활동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한다.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월 3주차	설문 조사	교내	전교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식소 출구에서 독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
6월 초~8월	UCC 제작	교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를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하여 역사 왜곡을 막고자 함
6월 초	신문 제작	교내	독도의 경제적 가치와 생태계를 통해 독도의 중요성을 홍보함
7월~8월	연표 제작	교내	독도의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연대기 순으로 조사한 후 연표로 제작함
6월 2주차	퀴즈 제작	교내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간단한 퀴즈를 제작하여 교내에 게시하고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함
7월 3주차	타이포그래피 제작	교내	'독도 바로알기' 교내 대회에 참여하여 독도를 주제로 한 타이포그래피를 제작함
8월 초	인터뷰 실시	교내외	단양 지역 역사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요약서	요약서	"친구들의 독도 관심 업"을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요약서
2	활동 보고서	보고서	"친구들의 독도 관심 업"을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독도 UCC	영상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
3	독도 신문	사진	독도의 가치를 신문을 통해 제작하고 홍보함
4	독도 연표	PPT 파일	독도의 역사(고대~현대)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여 교내 현수막 게시
5	독도 퀴즈	한글 파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도 퀴즈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서 독도 문제에 가장 심각한 부분인 국민들의 독도 문제에 대한 경각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함으로서 앞으로의 독도 문제 해결에 학생들이 앞장설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게 되었고 교내에 독도 홍보물을 전시 함으로써 외부 방문객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었다.

① 설문 조사



교내 급식소 출구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② UCC 제작



UCC 제작 전 동아리원의 사전 회의 모습이다.

동영상 제작 마스터, 정현진의 영상 편집 작업 모습이다.

③ 신문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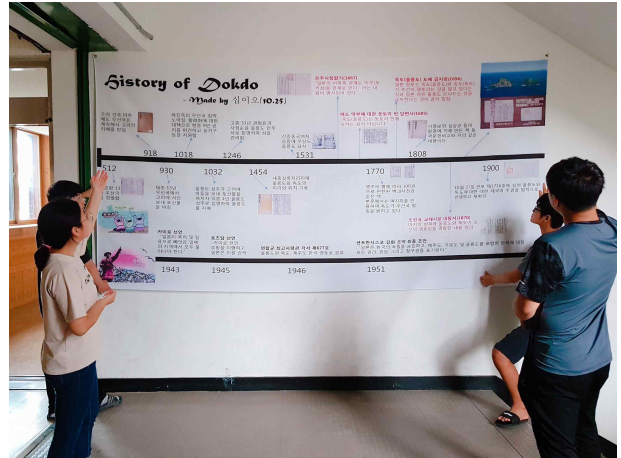
완성된 신문을 예리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문을 사회과 교과교실에 게시하는 모습이다.

④ 연표 제작



교무실에서 제작 완성된 연표를 선생님과 검토하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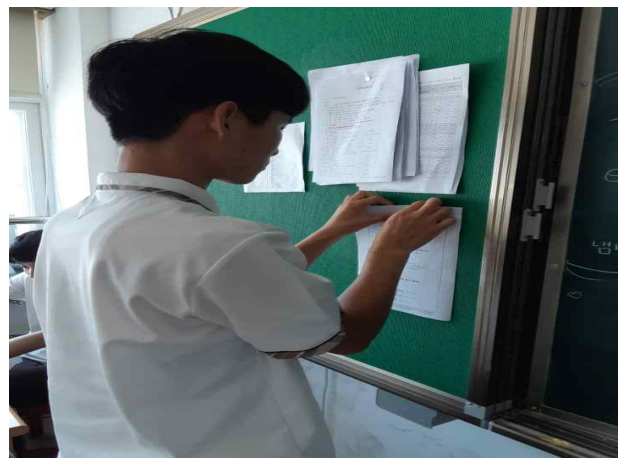


완성된 연표를 교내 복도에 전시하고 기념 사진을 찍어보았다.

⑤ 퀴즈 제작



독도 퀴즈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상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완성된 독도 퀴즈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학년별로 붙여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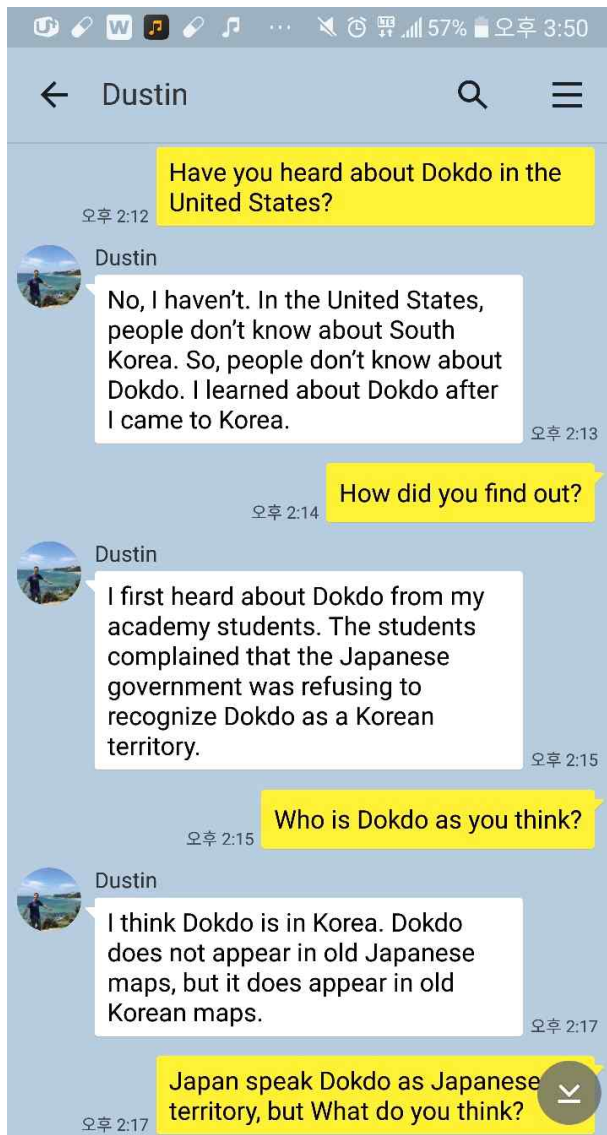
⑥ 타이포그래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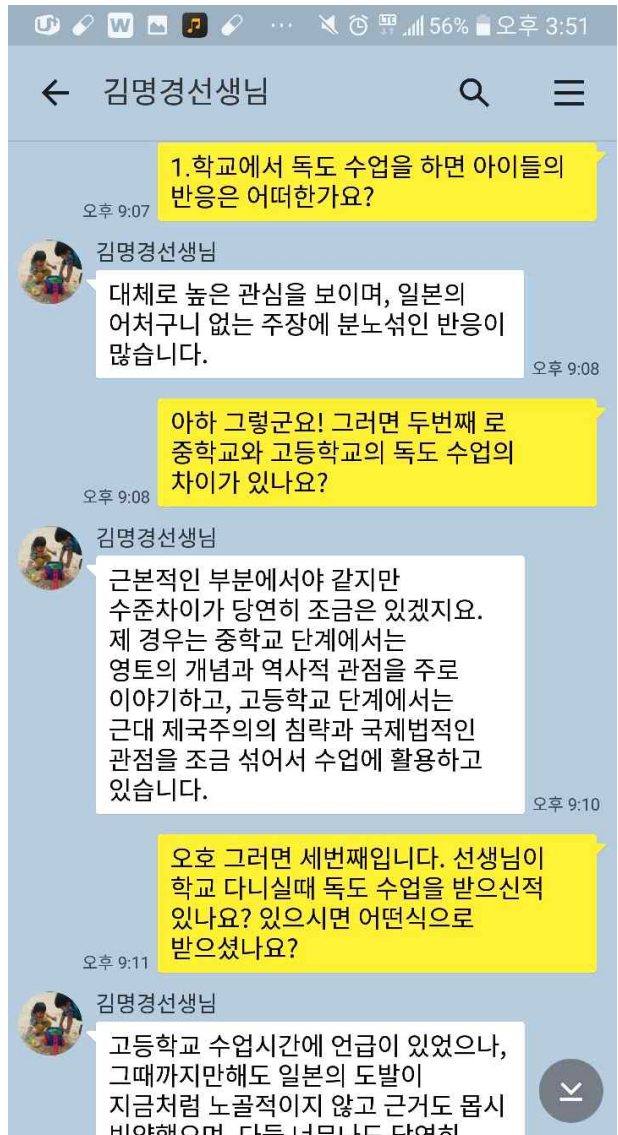
교내 대회로 개최된 '독도 바로알기' 대회에 동아리원이 참가하여 타이포그래피를 제작하는 모습이다.



⑦ 인터뷰 실시



중학교 원어민 선생님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역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향후 계획

저희가 속해있는 교내 역사 동아리를 통해 위와 같은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독도 체험관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2학기 때에 이곳에 방문하여 체험 중심의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김대훈	<p>이번 100일 간의 활동을 통하여 독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학교에 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해보면서 실천도 해보고 뿌듯한 활동이었다. 활동을 해보고 조사도 해보면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내가 아는 것 보다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더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저마다 독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점도 느낄 수 있었다.</p> <p>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팀원이 다 동갑이 아니고 2학년 선배들도 있었지만 팀장인 나의 의견에 잘 따라 주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 외에 팀원들도 다 잘 따라주어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p> <p>이번 활동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을 뽑으라면 나는 역사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 인터뷰와 독도 연표를 제작하였다는 것을 뽑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상의 한계점이 없지는 않아 많은 활동들을 해보지 못하고 너무 평범한 것만 했다는 점이다. 그나마 우리학교가 국토연구 학교에서 예산을 조금 받아서 독도 연표라도 제작할 수 있었지만 국토 연구학교가 아니었다면 아마 예산을 받기 어려웠을 것 같다. 예산도 없이 이런 대회를 열려고 하면 최소한 그 전년도에 공지를 해서 학교 측에서 따로 예산을 뺄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p> <p>그래도 이번에 우리 활동들로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독도의 날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다.</p>
천성혁	<p>한국의 역사와 세계사를 좋아했었는데 이번 독도 바로 알기 대회라는 대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평소에 독도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과 얼마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가끔 뉴스에서 독도에 대한 이야기와 일본에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다. 친구들은 독도에 대해서는 그냥 메탄하이드레이트만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독도에 대한 역사와 아름다운 생태계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왜 독도를 모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이번 독도 바로 알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p> <p>이 대회 과정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라는 말을 하면서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먼저 친구들이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설문 조사를 하면서 친구들이 '아 이 정도를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생각으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토대로 신문을 만들고 연표를 만들</p>

	<p>고 UCC를 만들게 되었고, 이 과정을 거칠 때 마다 말싸움을 할 때도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양보하면서 팀워크가 생겨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을 하면서 내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독도의 역사와 우리 동아리 '십이오'의 친구들의 독도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p> <p>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더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주제는 ' 친구들의 독도 관심 업'으로 했지만 생각보다 친구들도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독도에 대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독도를 모르는데 독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정보의 독도를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p>
강수현	<p>이번 활동을 통해 독도의 날과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독도 신문(십이오)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독도의 지리적 역사에 대해 깊이 알게 되어서 의미 깊었다.</p> <p>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독도가 우리나라의 국토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p> <p>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독도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독도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체험 활동을 하면서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독도 신문(십이오 신문)을 만들 때 일본이 독도를 왜 원하는지, 독도가 왜 중요한지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지식을 넓혀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p>
정현진	<p>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이번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흥미가 생겨서 참여했다. 처음 시작해서 과제가 주어졌을 때는 막막했지만 점차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수행해 나가면서 점점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역사에 관한 내용이 많아 내용이 더 친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p> <p>이번 대회를 통해 독도에 대하여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물으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독도가 우리 땅인 건 알아도 왜 우리 땅인지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항상 독도에 대해 물으면 그저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번 우리의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나와 우리 팀원들처럼 독도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p> <p>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독도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빼앗겼던 역사와 우리가 외세에 침략을 당했던 수모의 역사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의 가치를 알고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p>
황영제	<p>평소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고, 그만큼 교훈이 있는 경험이었다. 독도에 대해서 기본만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조사하면서 독도의 역사를 자세하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처음 다가가는 주제여서 많이 해매고 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p>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했지만 같은 팀의 친구들 덕분에 조금씩 나아갈 수 있어서 팀워크를 가깝게 느꼈다. 또한 설문지 조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점 과 부족한 점, 필요한 점을 정리하면서 설문지를 조사한 것이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

또한 '십이오' 신문을 만들면서 독도의 지리적 가치, 해양적 가치, 생태계적 가치 등을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생각을 넣어 정리하며 동아리 동료의 많은 도움을 받아 다른 활동보다 교훈이 많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장도 조사하면서 일본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것도 자세히 알게 되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독도를 'East Sea', 'Japan Sea'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단양의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을 인터뷰 할 때에도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시선으로 독도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상식 퀴즈를 제시하여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 것도 즐거웠다.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역사 동아리로서 학교에 남을 시간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를 깊이 배워야겠다.

5. 건의사항

- 대회 사전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전 대회 성과물을 공유하고 올해 활동 방향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지침과 안내의 역할이 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 팀마다 기본적인 예산이 지급되면 학생들의 활동에 금전적 차질이 없을 것이고, 때문에 하고자 하는 활동을 내실 있고 다채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